

정부출연(연) 역할 새롭게 정립하자



글 | 박화영 _ 한국기계연구원장

2006년도는 수출 3천억 달러를 세계 11번째로 달성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한해였다. 이는 1964년 1억달러 수출 이후 42년 만에 이룩한 거대한 성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국가적 거대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그 동안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IT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의 전통산업에 대한 꾸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수출 5천억 달러를 준비할 시점이지만, 그 목표는 그리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

2007년을 시작하는 우리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저환율·원고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장성 등의 경제적 상황과, 이공계기피현상 등의 사회적 현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술경쟁력만이 향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해결책으로 여기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의 제일선에 서있는 정부출연(연)은 그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미래 원천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인큐베이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개발의 기초는 융·복합기술이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높고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민간에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를 필두로 출연(연)들이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발굴하여 이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까지 개발되었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출연(연)의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시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된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와 모델의 구축 및 정착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예산 비중이 연구개발에 치중되고 있으나, 향후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기술사업화에 대한 예산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산·학·연 및 지자체와의 상호 연계를 통한 윈-윈 모델 구축이다. 산·학·연이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호간의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집중 연계하여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최근 FTA와 같은 외부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연(연)과 지자체가 상호 연계하여 출연(연)은 우수한 기술을 공급하고, 지자체는 인력과 기타 인프라를 제공하여 산업을 특화시킴으로써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는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우리 나라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지금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단결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 위에 과거 선조 때부터 보여준 우리 조상들의 과학기술 능력이 꾸준히 발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출 5천억 달러 시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때다. ㉞